

또 교회발...신안 지도침례교회서 13명 집단감염

1월 말 코로나 방역수칙 어기고 일주일간 강연회...명절 연휴 전파 전남도 "교회 목사 형사고발 계획"...접촉자 414명 이동중지 명령

신안군 지도읍 소재 지도침례교회에서 사흘 새 13명의 교인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발(發)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말 1주일 연속 방역 수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부흥회 성격의 강연회를 주최하면서 코로나 19가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초 감염 경로 및 시기에 따라 명절 사이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782~793번 확진자 중 11명(전남 782~791, 793번)이 신안군 지도 침례교회 교인들로 파악됐다. 신안 지도 주민 7명과 인근 무안 주민 4명이다.

이 교회는 지난 14일 확진된 전남 777-778번 70대 노부부가 다니는 곳으로 이날 양성 확진자 11명을 포함해 이 교회에서만 교인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목사는 음성이 나왔다. 전체 교인은 44명으로 타지역 거주자 등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교회를 오간 교인은 41명으로 파악됐다.

777-778번 노부부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일 전북에서 찾아온 아들(전북 1093번)의 확진 통보 이후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닌 교회 교인 40여명과 이들의 접촉자 40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해 추가 확진자를 찾아

냈다.

역학 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 지난달 25-31일, 2월 3, 7일 교인 대상으로 대면 강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당국이 최초 감염원에 대한 광범위한 정밀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허용하는 예매가 아닌 부흥회 성격의 대면 강연회 내지 강연모임을 연일 열었다.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이라며 "신안군에서 해당 교회 목사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교회발 집단감염 경로에 대해 예초 노부부 아들인 전북 1093번의 고향집 방문으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전북 1093번의 부인은 음성이 나온 데다 교회 내 집단감염이 속출해 교회에서 감염이 시작됐다는데 무게추가 쏠린다. 전북 1093번이 고향집을 지난 8일 다녀갔고 이후 교회 예배 및 강연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교인 다수가 감염됐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교회에서 최초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 414명에 대해서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도읍과 해제면에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



16일 오전 전남 신안군 지도읍 행정복지센터 마당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방역 당국은 지도읍 개신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데다 설 명절을 전후해 인구 이동이 많아 그만큼 접촉도 많

전남도 공무원 1826명 채용 32개 직렬...지난해보다 감소

전남도가 올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1826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 직렬별 모집인원은 행정직 692명, 시설직 255명, 사회복지직 152명 등으로 총 32개 직렬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7급(행정, 수의) 64명, 8급(간호, 보건진료) 99명, 9급(행정, 농업, 시설 등 18개 직렬) 1585명, 연구사 46명, 지도사 32명이다.

지난해 모집인원(1864명)과 비교해 7급 선발은 83명에서 64명으로 19명 감소했으며, 8·9급은 1708명에서 1684명으로 24명 줄었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73명에서 78명으로 5명 증가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직직과 경험이 요구되는 연구직 및 일부 기술직에 한해선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사회 소수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67명과 저소득 39명, 국가유공자 14명, 고졸(예정자 포함) 31명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민과 수험생의 건강,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 매뉴얼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시험과목 개편 등 달라지는 임용시험제도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올해 변경된 주요 내용은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직 임용시험(6월 5일, 10월 16일) 사·도별 응시원서 중복접수 불가 ▲0.5~1%가 산점을 부여하던 통상·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7급 공채시험의 영어·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농업분야의 전문직직과 경험을 갖춘 인재선발을 위해 농촌지도사 농업직류를 일괄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치르게 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한다. 거주지 제한요건, 시험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https://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정촌고분 백제 금동신발 보물된다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신발도

백제시대 금동신발 2건이 사상 첫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시대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금동신발은 5-6세기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로, 삼국시대 고분 출토 금동신발 중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췄다. 그동안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은 국보나 보물로 많이 지정됐지만 금동신발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동신발은 삼국 시대 유적에서만 발견되는 고대 금속공예품 중 하나다. 비슷한 시기 중국 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 고분에서는 유사한 형태 신발이 출토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지난 2014년 대형 분구묘인 1호 석실 제3목관에서 발굴됐다. 5~6세기 영산강 유역에는 복암리고분군 등 대형 고분이 축조됐는데, 이 가운데 정촌고분은 1500여 년 전 백제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분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동신발의 발등 부분에 부착된 용머리 장식은 현존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한 사례다. 최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분석 결과, 신발 주인이 40대 여성으로 추정됐다. 이 금동신발의 형태와 제작기법, 문양은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과 유사하다. 얇은 금동판 4장으로 바닥판과 좌우 옆면판, 발목깃판을 만들어 작은 못으로 연결했으며 문양을 투각해 선으로 묘사했다.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4기의 대형 분구묘(墳丘墓·봉분과 같은 분구를 조성한 다음 매장시설을 만드는 무덤) 중 규모가 가장 큰 1호분 제 4호 석실에서 2009년 발굴됐다. 당시 신발은 무덤 주인의 양쪽 발에 신겨진 상태였다. 신발 바닥에는 높이 1.7cm의 뾰족한 못(18개)을 붙였으며, 내부는 비단 재질의 직물로 마감돼 있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싼땅 대지, 156평 중심상업지역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9층 오피스텔 허가 득 PF 28억 확정 매매 - 20억(조정가)

(주)신세계. 010-3605-5000

'정월대보름! 소 들어온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20~26일 온오프라인 나눔행사

부럼·복주머니 나눔, 방패연 시연, 영상콘텐츠 게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월대보름! 소 들어온다'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일 정월대보름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나눔,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날 공개되는 영상 콘텐츠 '보소보소 영상보소'는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의 전승을 위해 해마다 박물관에서 치러진 대보름 영상을 재구성한 것으로, 박물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건강한 한 해 나기를 위한 부럼깨기 풍속을 즐길 수 있는 '부럼세트 나눔', 신축년 복을 가득 담은 '향기나는 복주머니 나눔', 지역의 연 제자 명인이 만든 '방패연 나눔 및 시연' 등 행사도 펼쳐진다.

부럼깨기는 부스럼을 예방하며, 새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대표 풍속 중 하나다. 박물관은 코로나19도 꼼짝 못하는 호두, 땅콩으로 구성된 부럼 400세트를 마련해 20일, 21일, 24일, 26일 등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카오톡 계정 친구를 맺은 박물관 방문자(1가족 1세트 한정)에게 제공한다. 복의 기운을 담은 향기나는 복주머니 나눔은 20일, 21일, 23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400세트 한정으로 진행된다.

나쁜 것은 보내고 좋은 복을 불러오는 '송액 영복(送厄迎福)'이라는 문구를 쓴 방패연 나눔도 준비됐다. 연 제자 전문가가 만든 방패연은 50개 한정으로 '신축년 삼행시 짓기' 당첨자를 대상으로 배부된다.

'신축년 삼행시 짓기'는 20일부터 2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바로예약에 제출하면 되며, 박물관은 26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1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 박물관 광장에서는 대형 연날리기 시연 행사도 열린다.

구종천 박물관장은 "정월대보름 나눔 행사가 광주 공동체의 활력을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산행안내

산악회 ☎ 010 7794 6920

2월 28일(일)
▲광주KJ산악회 2월 28일(일) 강원도 태백&백두대간의 중심 "함백산"산행, 염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산 산행, 염주체육관 06:30,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5:55, 비엔누차장 06:00 * 다음 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농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